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생활함으로써 평화와 양심의 화평, 영적인  
치유와 새로워짐,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데 필요한 세정제이자 영적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죄를 없애는 진정  
연고이며,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계속 충실할  
수 있게 하는 보호책입니다.

### 실재하는 절대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닌 가족과 친구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가 선교사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갈수록 절대성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 무릎을 꿇[고] ……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빌립보서  
2:10~11)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영원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의 교회가 후기에 충만하게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배우고 시험해 보라는  
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툴고 돌발적이며 집요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영혼의 온 힘을 다해 그분이 기록하시며  
실재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 “와서 보기”(요한복음 1:39)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

#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들었던 진리를 숙고하고 그 진리를 통해 훨씬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감  
어린 메시지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 대회에  
임한 영을 함께 느끼면서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임 중에 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이 고양되고 감동을  
받았으며, 모임마다 드린 기도로 하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님들께  
전 교회가 보내는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앞으로  
올 여러 세대 또한 그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회원들뿐  
아니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린다 케이 버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대할 때 존경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매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밅시다. 우리는 서로 보살핌으로써 축복을 받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댁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 보면 그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sup>1</sup> 우리가 이 지시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은 일을 하려 힘쓰는 가운데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이자 의로움의 모범이 되어 “세상의 빛”<sup>2</sup>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분과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할 때 저는 강화되고 고양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서 집을 떠나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들었던 진리를 숙고하고 그 진리를 통해 이 대회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 곧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1:5.  
2. 빌립보서 2:15.

#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합당하게 구원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진심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 막내딸이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어땠니?” 하고 묻자 그 아이는 “좋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라고 깨우자 딸아이는 팔짱을 끼고서 단호하게 “이미 갔다 왔잖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아이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5일, 그것도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지도, 그 아이를 준비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서, 다 함께 이런 장면을 한 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해의 왕국실에 앉아 있는데,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올릴 여러 쌍의 신랑 신부가 안내에 따라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한 신부가 약혼자의 손을 잡고 해의 왕국실에 들어섭니다. 간소하지만 아름다운 성전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따스한 웃음이

스며 있습니다. 차림새는 단정했으며, 산란하지 않았습니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와 자신을 기다리는 성스러운 의식에 대한 경외감과 경의, 그리고 자신과 결혼할 남자를 향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녀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귀여운 십 대 손녀가 제 베개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성전에 갈 때 가장 놀랐던 것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영이었어요. 사람들은 영감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수 있어요.”<sup>1</sup> 손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영감과 계시, 그리고 살아 가면서 적들에게 맞설 힘을 받게 됩니다. 손녀는 계속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침례와 확인을